

易을 통하여 본 深衣의 象徵性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학과
전임강사 정혜경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부교수 권영숙

目 次	
I. 서론	IV. 深衣 구성과 象
II. 宇宙的 象徵體로서의 人間과 深衣	V. 深衣 구성과 數
III. 易에 있어서 象과 數	VI. 結 論

I. 서론

深衣는 周代 이전에 형성되어 中國의 정치,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아 변화되어 오면서 天子의 養老 禮服, 諸侯의 祭服을 비롯한 士大夫 및 庶民 등의 禮服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전래되어¹⁾ 그 후 朱子學의 유입과 더불어 1900년대초에 이르기까지 儒學者들 사이에 통상 禮服으로 착용되었다.

深衣는 그 속에 심연한 의미를 담고있는 관활한 袍形으로서 上衣와 下裳이 허리에서 연결되었고 깃과 소매부리 및 옷의 단에서 緣을 들렀으며, 의복 속에 儒敎의 철학적 의미를 담아 의복을 하나의 小宇宙로 보았는데 이는 宇宙와 인간이 일체를 이룬다는 中國의 自然觀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²⁾ 이처럼 儒敎哲學에 기반을 두고있는 深衣 구성에 대한 연구는 儒敎哲學이 사상적 기반이 되어 禮를 중요시한 우리나라 服飾觀 연구의 基調가 되리라 본다.

深衣에 대한 가장 오래된 문헌은 禮記로서 玉藻篇과 深衣篇에는 深衣制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있고 그 후 禮記에 대한 역대 학자들의 주석과 연구가 계속되어 왔지만 제각기 다양한 설을 제시하여 끊임없이 논의가 있었다. 그중 後漢代 鄭玄의 注와 唐代 孔穎達의 疏가 정통적인 해설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시 宋代에는 司馬光이 書儀에서 深衣의 옛제도를 정립시키고 朱子가 이 설을 이어 家禮와 朱子大典에 수록하였으니, 그 후 諸家들의 연구는 주로 이들의 설에 의거하여 辯證한 것이다.

深衣의 象徵性은 禮記 본문과 그에 의거하여 古文獻중에 논의된 바가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儒敎哲學의 견지에서 해석된 것이며, 또 朝鮮時代의 實學者들은 나름대로 經文을 해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발표된 深衣에 대한 연구를³⁾ 바탕으로하여 深衣 각 부위의 구성에 내포되어 있는 象徵性을 儒敎哲學의 중심사상이 되는 易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정혜경, “深衣에 관한 研究” 박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학교, 1990, 47면.

三國時代에 儒學의 수용과 더불어 喪禮의 기풍이 형성되었으므로 이 시기에 深衣는 漢代와 마찬가지로 喪服 및 祭服으로 상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Leroy S. Bouner(編), 자연 그 동서양적 이해(서울: 종로서적, 1989), 133면.

3) 정혜경, 권영숙, “朝鮮時代 저고리의 구성원리에 관한 고찰—深衣구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韓國衣類學會誌 Vol. 12, No. 1, 1988.

정혜경 외, “朝鮮時代 深衣 유형에 관한 연구” 韓國衣類學會誌 Vol. 13, No. 1, 1989.

정혜경, 前揭書.

II. 宇宙的 象徴體로서의 人間과 深衣

儒家 哲學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은 天道와 人道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가 삶을 기탁하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게 있으며'(天道)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적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人道) 하는 삶의 문제를 철학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이다.⁴⁾

그런데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人間의 모든 생존방법(人道)은 궁극적으로 天理自然(天道)을 본 받아서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⁵⁾ 儒家哲學의 이론적 체계를 갖춘 周濂溪의 太極圖說에 의하면

“無極이면서 太極이다. 太極이 動하여 陽을 생성하고, 動이 지극하면 靜하여 지는데, 靜하여지면 陰을 생성한다. 靜이 지극하면 다시 動하게 되는데 이같이 한 번 動하고 한 번 靜하는 것이 서로 근본이 되어 陰陽으로 나뉘어 비로소 兩儀(陰, 陽)가 성립된다. 陽이 변하고 陰이 변하여서 5行(水, 火, 木, 金, 土)을 생성하고 이 5行의 기운이 고루 퍼져서 4時가 운행하게 된다.

5行은 곧 하나의 太極이며 太極은 본래 無極이다. 聖人은 이것을 정함에 있어 中正仁意로써 하고 靜(無欲이기 때문에 靜이다)을 주로하여 人極을 확립한다.

그러므로 聖人은 天地와 함께 그 德을 같이 하여 明과 함께 그 광명을 같이 하며, 4時와 함께 그 질서를 같이 하며, 鬼神과 함께 그 吉凶을 같이 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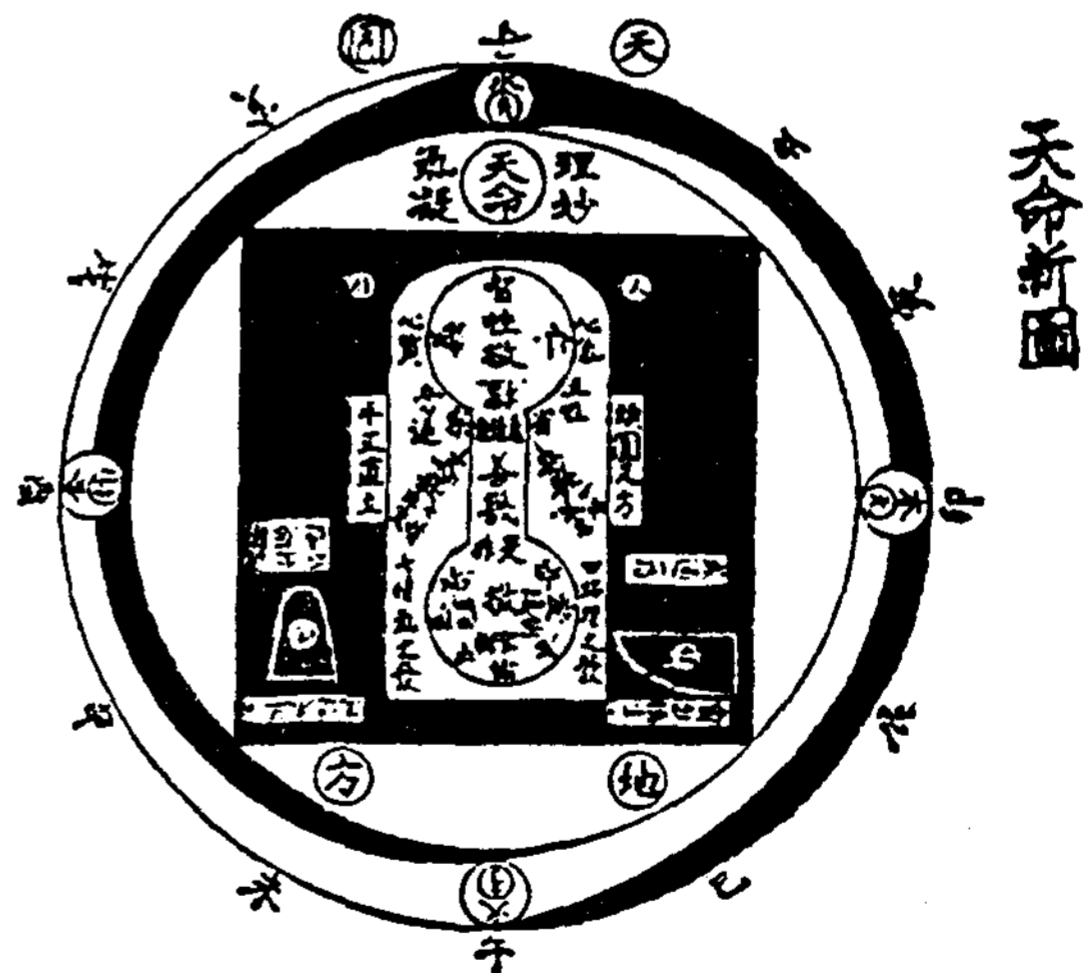
고 하는 太極原理에서 天道論과 人道論을 결합시키고 있다.

즉, 天地日月 및 四時鬼神과 그 형체를合一하고

그 功用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聖人の 德이며 우주 전체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退溪의 天命圖說後敍에도 설명되어 있다.

“天命이 내 몸에 구비되어 있는 것을 알아서 德性を 높이고 天命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이룩하면, 본래의 고귀함을 잃지 아니하여서 人極이 여기에 있고 天地에 참여하여 化育을 돕는 공이 모두 지극하게 될 것이나…….”⁷⁾

라고 하여 우주 속에서의 人間의 위치에 대하여 人間은 天地를 象徴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즉 退溪의 天命新圖(圖 1)를 보면 밖의 둥근 圓은 하늘을 象徴하고 圓 안의 네모는 땅을 象徴하고 있으며, 땅을 象徴하는 네모 안에 윗쪽이 둥글고 아래쪽이 네모로 그려진 것은 둥근 머리와 네모난 발을 지닌 人間을 象徴하는데 이처럼 人間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象徴하며 발이 네모난 것은 땅을 象徴하는 것이다.



〈圖 1〉 退溪의 天命新圖

4) 儒家철학이 다루는 주요 내용은 天道와 人道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모든 생존방법(人道)은 궁극적으로 천리자연(天道)을 본받아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金忠烈, “東洋人性論의 序說” 동양철학의 본체론과 인성론(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169면.

5) 韓國東洋哲學會(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4) 77면.

6) 周敦頤, 太極圖說, 宋河環譯. [세계의 대사상] 30,(서울: 휘문출판사, 1974), 37-41면.

7) 李滉, 前掲書, 雜著, 李相殷譯. [고전국역총서] 21,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7), 176-177면.

이처럼 인간이 小宇宙로서 天地를 象徴하듯이 深衣도 역시 宇宙의 원리를 담아 宇宙와 인간과의 복이 조화를 이루어 자연의 원리(天道)를 본받아 인간이 행해야 할 바(人道)를 이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같이 深衣가 지닌 象徴성을 易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 것이다.

Ⅲ. 易에 있어서 象과 數

儒敎哲學은 易을 중심사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 易은 동양의 여러 학문에도 영향을 미쳐 天文, 地理, 樂律, 兵法, 韻學, 算術등 어느 것이든 깊이 파고들면 易이 되고마는 경우가 있다.⁸⁾ 이러한 경우에는 易의 해석방법상 주로 象數易⁹⁾ 계통이 관련되어 易과 특수학문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易學史에 있어서 朝鮮時代 實學者들은 清代와 더불어 古代 儒學을 회복하고자 한 시기로서 原始易에 가깝다고 생각되는 漢代의 易인 象數易 경향에 많이 개입되었다.¹⁰⁾ 따라서 深衣구성의 象徴성에 관하여도 역시 이러한 象數易의 해석방법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은 주로 朝鮮時代 實學者들에 의한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易에 있어서 象이란 8卦를 만들때 그것이 象徴하는 사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設卦傳에 주로 8卦의 각각에 대응하는 象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衣, 裳과 관련된 기록은 없지만 漢代의 荀九家¹¹⁾들이 8卦의 각각에 象을 더 첨가해 넣은 기록에 의하면 乾의 象에는 衣, 坤의 象에는 裳이 추가되어 있다.

設卦傳에 나타난 乾, 坤卦의 象과 荀九家들에의

해 보충된 대표적인 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乾, 坤卦에 대응하는 象

	設卦傳의 象	荀九家에 의해 보충된 象
乾	健, 父, 馬, 首, 天, 圖, 君, 玉, 金, 寒, 氷, 大赤, 良馬, 老馬, 瘠馬, 駁馬, 木果.	龍, 衣, 直, 言.
坤	順, 母, 牛, 腹, 地, 布, 釜, 吝嗇, 均, 子母牛, 大輿, 文, 衆, 柄 (땅에 있어서의) 黑.	裳, 帛, 黃, 邑, 方, 迷, 亂, 漿, 囊

象은 우주적인 기본원리를 요약하여 표현한 것으로 古代 문화는 象의 문화라 할 만큼 象의 역할은 광범위하여 단순한 전달 기호로서만 아니라, 우주의 비밀을 암시하는 암호적 기호로서,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는 주술적인 기능을 지녔다.¹²⁾ 深衣構成에 사용된 象 역시 각기 象徴하는 바가 있으므로, 먼저 深衣의 象徴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周髀扁經에는 數의 법이 圓과 方에서 나오고, 圓은 方에서 나오고, 方은 矩(曲尺)에서 나오고, 矩는 다시 9·9, 81 만물에서 나온다고 하였는데¹³⁾ 이 세 象(圓, 方, 角)은 만상의 꼴을 象徴化 한 것이다.

淮南子에서는 다섯 방위를 나타내는 五星神이 각기 그 보좌역을 하나씩 거느리고 있는데, 동방을 맡은 보좌역(小甲)은 콤파스(規)를, 남방은 저울(衡)을, 중앙은 먹줄통(繩)을, 서방은 곡척(矩)을, 북방은 저울추(權)를 각기 들고 있다.¹⁴⁾

8) 狩野直喜, 中國哲學史, 吳二煥譯, (서울: 乙酉文化社, 1986), 86面.

9) 易의 해석방법은 象數易 계통과 義理易 계통으로 나뉘어지며 象數易이 주로 天道에 관계된다고 하면 義理易은 주로 人事에 관계되는 것이다.

10) 丁海王, “周易의 解釋方法에 관한 研究—丁若鎔의 易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부산대학교, 1990, 15-16面.

11) 京房, 馬融, 鄭玄, 宋衷, 虞翻, 陸績, 姚信, 翟子玄, 荀爽 등의 9人을 말한다. [丁若鏞, 周易四箋(與猶堂全書 3). (서울: 景仁文化社, 1982), 476面 참조.]

12) 朴容淑, 韓國의 始源思想. (서울: 文藝出版社, 1985) 145-146面.

13) 周髀扁經, 再引用, 金相日, 前掲書, 197面. 「數之法出於圓方 圓出於方 方出於矩 矩出於九九八一萬物」

14) 淮南子, 天文訓.

入學圖說에 의하면 하늘은 圓이고 陽이 되며, 땅은 方이고 陰이 된다고 하여 天地를 圓·方의 象으로 표현하고 있다.¹⁵⁾

三·一神話에서는 經文의 기본 象을 圓·方·角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세가지 象은 萬象의 근원이 된다고 하였다.¹⁶⁾ 즉 圓은 하늘을, 方은 땅을, 角은 사람을 象徵하므로 圓·方·角은 天·地·人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數는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변화하고 있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象徵的 의미를 띤 것으로 사용되었다. 河圖와 洛書의 數理思想이나 또 數를 기본적으로 陰數와 陽數로 분류하여 짝수를 陰, 홀수를 陽이라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즉 숫자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 낮과 밤, 남자와 여자, 陽과 陰 등의 상대적인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深衣를 構成하고 있는 각 부분의 비례치는 그 치수 나름대로 象徵하는 바가 있으며 이는 주로 周易에 의거하고 있다. 周易 繫辭傳에는

“하늘은 1, 땅은 2, 하늘은 3, 땅은 4, 하늘은 5, 땅은 6, 하늘은 7, 땅은 8, 하늘은 9, 땅은 10이다. 天數는 다섯, 地數도 다섯이다. 다섯 자리가 서로 얻어서 각각 합하면 天數는 25요 地數는 30이다. 모두 天地의 數가 55이니... 이것은 변화를 이루고 귀신의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大衍의 數는 50, 그것을 쓰는 것은 49이다. 이것을 나누어 둘로 만들어서 天地를 본뜨고, 하나를 곁어서 셋(三才)을 본뜨고, 이것을 넷으로 세어서 4時를 본뜨고, 남은 數를 손가락에 끼워 윤(閏)달을 본뜨니, 5년이면 다시 윤달이 되므로 다시 손가락에 끼워 곁어 놓는다. 乾의 策은 216, 坤의 策은 144, 도합 360이니 1년에 해당된다. 두 편(篇)의 策이 1만 1천 5백 20이 되는 것은 만물의 數에 해당된다. 이리므로 네 차례 운영하여 易을 이루고, 18번 변화하여 卦를 이룬다.....”¹⁷⁾

고 하였다.

즉 天數 다섯(1, 3, 5, 7, 9 : 陽奇)을 합하여 25가 되고 地數 다섯(2, 4, 6, 8, 10 : 陰偶)을 합하여 30이 되니 天地의 數는 55가 된다.

그 외 深衣構成에 인용된 數로는 老陰數, 老陽數가 있는데 入學圖說에는 生數 1~5와 成數 6~10에서 이루어지는 老陰, 老陽, 小陰, 少陽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난다고 하면 둥근 것은 직경이 1이며 둘레는 3배가 된다. 3은 1奇 이므로 전부 이용하게 된다. 하늘은 3으로 치면 $3 \times 3 = 9$ 이것이 老陽數이다. 모난 것은 직경 1이면 둘레는 4가 된다. 넷을 합하여 1偶가 되므로 4는 그 반인 2를 이용한 것이 된다. 땅을 2로 치면 $3 \times 2 = 6$ 老陽數가 된다. 모든 數는 다 여기에 근거해서 일어나게 된다.”¹⁸⁾

“生數 중에서 陽數인 1, 3, 5를 합하면 老陽인 9가 나오고, 2, 4를 합하면 老陰인 6이 나온다. 1, 3, 4를 합친 것 8은 陽數가 많고 陰數가 적기 때문에 少陰이라 하고 1, 2, 4를 합한 것 7은 陰數가 많고 陽數가 적어 少陽이라 한다.”¹⁹⁾

이상의 象數易에 근거하여 深衣구성과 관련된 象徵性을 고찰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IV. 深衣 구성과 象

禮記 深衣篇에는 深衣 각 부위의 형태에 나타난 象과 그 의미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深衣는 대개 制度가 있어 規·矩·繩·權衡에 따랐다..... 소매는 둥글어서 規에 따르고, 曲袷은 曲尺(矩)같아서 方에 따르고, 負繩은 발꿈치에 이르러 直에 따르고, 아래단은 저울

15) 權近, 入學圖說, 陰陽六九爲老之圖, 權德周譯. (서울: 乙酉文化社, 131, 1983), 111面.

16) 三·一神話. 「○□△ 三者萬象之源 數之所由起也」

17) 周易, 繫辭傳, 金敬琢譯. [新譯西書三經·周易] (서울: 明文堂, 1974), 398-400面.

18) 權近, 前揭書, 陰陽六九爲老之圖, 111-112面.

19) 上揭書, 天地生成之數, 113面.

(權衡)같아서 平에 따른다. 繩은 지고 方은 품었는데, 直은 바르다(政)는 것이며 方은 옳다(義)는 것이다. 고로 易에 이르기를 乾 六·二의 動은 곧고(直) 또한 바르다(方)고 하였다. 權衡은 志가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함이다. 5法이 시행되었으므로 옛부터 聖人이 이것을 입었다. 規矩에서는 사사로움이 없음을 취하고, 繩에서는 곧음을 취하고 權衡에서는 편안함을 취했으니 옛부터 先王이 이것을 귀하게 여겼다.”²⁰⁾

이것은 정리해 보면 다음의 表와 같다.

<표 2> 深衣구성에 사용된 象과 象徵性

부위	象	象 徵
소 매	圓 (規)	無私
깃	方 (矩)	義, 無私
등 술	直 (繩)	政, 直
아래 단	平 (權 衡)	安志, 平心, 平

또한 이 禮記 深衣篇을 근거로하여 深衣 구성에 사용된 象에 대하여 논의된 문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衣는 위에 있어서 乾을 의미하고 裳은 아래에 있어서 坤을 의미한다.

이것은 周易에서 이른바 黃帝, 堯, 舜이 衣裳을 드리우고 천하를 다스린 것은 이 乾坤의 원리에서 취하였으므로²¹⁾ 衣(乾)를 위에 裳(坤)을 아래에 위치하게 하므로써 天地의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2) 深衣 이외의 다른 부속품에서도 우주원리를 담았으니 巾으로서 乾之一에 응하고, 履로서 坤之

二에 응하고, 衣로서 離之虛에 응하고, 帶로서 坎之中에 응하므로써 乾坤을 이어 上下의 位를 정하고 坎離는 그 가운데에 오르내린다.²²⁾

(3) 禮記의 ‘진동나비는 팔꿈치를 돌릴 수 있다’고 하는것은 가까이 몸에서 취했고 規·矩·繩·權衡에 따른다는 것은 멀리 物에서 취하였다.²³⁾

周易에

“옛날 包犧씨가 천하에서 왕노릇 할 때, 우르러서는 하늘에서 象을 보았고 구부러서는 땅에서 法을 보았고, 새·짐승들의 무늬와 땅의 마땅한 것을 보았다. 가까이 이것을 자기 몸에서 취했고 멀리는 이것을 물건에서 취했다. 여기에서 비로소 8卦를 만들었다.”²⁴⁾

는 글에 의거한 것이다.

(4) 帶를 가운데 둔 것을 몸의 중심부에 상하 경계를 지어 그 가지런함을 취하고자 한 것이다.²⁵⁾

(5) 소매가 둥근 것은 圓이 天之體이며, 曲袷이 네모난 것은 方이 地之象이고, 負繩이 곧고 아래단이 평평한 것은 直·平이 人之道로서 이것을 본받은 것이다.²⁶⁾

(6) 양소매는 서로 합하여 全圓을 이루고 양소매부리의 緣이 서로 접하여 全方을 이루게 되니, 圓 가운데 方을 품어 圓·方이 서로 짝을 이루어 陰陽이 함께하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方領으로 목을 둘러 圓體를 묘하게 이루니 方가운데 圓을 품은 것이 된다.

즉 方·圓은 본래 一體로서 方에서 네 각이 없어져 圓을 이루며, 圓에서 네 귀퉁이를 내어서 方을 이룬다. 方·圓은 서로에게서 생기고 저절로 서로

20) 禮記, 深衣 「古者深衣 蓋有制度 以應規矩繩權衡 袂圓以應規 曲袷如矩以應方 負繩及踝以應直 下齊如權衡以應平 故規者 行舉手以應容 負繩抱方者 以直其政 方其義也 故易曰 坤六二之動 直以方也 下齊如權衡者 以安志而平心也 五法已施 故聖人服之 故規矩取其無私 繩取其直 權衡取其平 故先王貴之」

21) 周易, 繫辭傳.

22) 吳載能, 禮儀類集續編, 卷一, 冠禮, 「將冠者服 深衣」

23) 宋翼弼, 龜峰集.

陳澧編, 禮記集說, (上海: 上海千項堂書局).

24) 周易, 繫辭傳.

25) 李德懋, 前揭書, 卷之8, 禮記臆二 深衣.

26) 日講禮記解義, (欽定四庫全書, 經部117, 1736-1795), 717面.

를 포함하므로 方領이 교차하면 스스로 圓體를 품고 圓袂는 緣의 方을 품어 合方之象에 응한다.²⁷⁾

(7) 圓·方이 일체가 되는 것은 深衣에만 그치지 않고 幅巾과 方履에도 볼 수 있다. 즉 巾이 둥근 것은 上天이 만물을 덮고 있는 것이며, 履가 네모난 것은 下地가 만물을 싣고 있는 것이다.²⁸⁾

(8) 深衣의 소매가 앞에 있어 動하여 致用하는 것은 圓이 動이기 때문이며 袷이 가운데에서 靜하여 成體하는 것은 方이 靜이기 때문이다.²⁹⁾ 이는 太極에는 動하고 靜하는 이치가 있어 動이 지극하면 靜이 되고, 靜이 지극하면 動이 된다는 것이다.

(9) 衣의 負繩은 아래로 準平에 도달하고 齊의 準平은 위로 繩直을 이어 相含之義에 응한다.³⁰⁾ 즉 繩直과 準平·平은 본래 一體로서 繩의 直을 橫으로 놓으면 準平이 되고, 準의 平을 從으로 놓으면 繩直이 된다.

이상의 기록들을 요약하면 각 부위 형태를 만드는 規·矩·繩·權衡의 5法은 正(負繩), 義(矩), 安志·平心(權衡), 無私(規·矩)를 象徵하였고, 또 소매의 圓과 曲袷의 方은 天地를 본뜨고 負繩의 直과 아래단의 平은 人을 본떠 深衣 속에 소우주를 담아 우주와 인간이 일체가 되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V. 深衣 구성과 數

禮記 深衣篇과 玉藻篇 가운데 深衣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비례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深衣는 3袷이며 裳 아래단을 바느질 할 때는 허리의 2배이다. 衿은 가쪽에 있다. 소매는 팔꿈

치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 長中繼掩尺하며 袷은 2寸 소매부리는 1尺2寸 緣은 1.5寸이다.”³¹⁾

“12幅을 만들어서 12월에 따르고…….”³²⁾

즉 深衣에 사용된 12폭은 1年 12個月을 象徵하여 하늘의 이치에 따랐으며, 등술(直)이 政에 따르고 깃(方)이 義에 따른 것은 땅의 이치를 살핀 것이다. 또 衣가 4폭인 것은 4時에서 취한 것이고 裳이 12폭인 것은 12個月에서 취한 것이니 衣 1폭에 裳 3폭을 연결하는 것은 매 時가 3個月인 것을 象徵하고 衣裳을 연결하는 곳(허리)이 7尺 2寸인 것은 4時 12個月과 72侯³³⁾의 氣를 갖는 것을 象徵한다.³⁴⁾

그 외에 특별히 朝鮮時代에 實學사상의 영향을 받은 朴珪壽와 許傳은 深衣 각 부위의 치수를 정하여 그것이 상징하는 바를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는 그들이 새로운 형태의 方領深衣를 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치수를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고 아울러 深衣가 심연한 뜻을 담고 있는 옷이라는 의미를 실증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朴珪壽의 深衣制에서 深衣 각 부위의 치수에 사용된 數가 象徵하는 바는 周易에 근거 하였는데 그 내용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³⁵⁾

(1) 어깨에서 복숭아까지의 전체 옷길이는 5尺 5寸이며, 그중 1/3은 衣길이(1尺 8寸 3分), 2/3는 裳길이(3尺 6寸 6分)로 하였다.

즉 天地의 數가 55이므로 옷길이를 5尺 5寸으로 하였고, 天은 1·地는 2이므로 衣(天)는 전체의 1/3을 裳(地)은 전체의 2/3를 취하여 그 치수를 정한 것이다.

(2) 衣는 온폭을 사용하며 衣의 나비는 1尺 8寸

27) 吳載能, 前揭書.

28) 上揭書.

29) 宋翼弼, 前揭書.

30) 吳載能, 前揭書.

31) 禮記, 玉藻. 「深衣三袷 縫齊倍要 衿當旁 袂可以回肘 長中繼掩尺 袷二寸 袷尺二寸 緣廣寸半」

32) 禮記, 深衣. 「制十有二幅 以應十有二月」

33) 1侯는 5日이므로 1年은 72侯 즉 360日이 된다.

34) 宋翼弼, 前揭書.

陣濤篇, 前揭書.

35) 朴珪壽, 居家雜服攷.

이다.

그 이유는 衣는 乾이며 乾은 순일하여 단독(專)이기 때문이다. 또 乾은 陽이니 9, 9이며 나누지 않으므로 衣의 폭은 2, 9로서 1尺 8寸이 된다.

(3) 裳은 폭을 나누어 만드는데 裳 1쪽의 위 나비는 6寸 아래 나비는 1尺 2寸이다.

裳은 坤이며 坤은 나누어지기(關) 때문이다. 또 坤은 陰이니 6, 6이므로 나누어 위 나비는 1, 6 아래 나비는 2, 6이므로 각각 6寸, 1尺 2寸이 된다.

(4) 衣 6쪽의 나비는 10尺 8寸으로 전후를 합하면 21尺 6寸(216寸)이며 이 衣의 치수는 裳의 허리둘레 치수에서 취한 것이다.

즉 乾의 策인 216을 衣의 전후 둘레로 삼았는데, 이것은 裳의 허리둘레 치수 72寸(72×3)에서 취하였다.

(5) 裳의 아래단 둘레는 14尺 4寸이며 이 치수는 衣의 袷(소매부리)에서 취한 것이다.

즉 坤의 策인 144를 裳의 아래단 둘레로 삼았는데, 이것은 袷의 좌우둘레 치수 4尺 8寸(48×3)에서 취한 것이다.

(6) 衣 6쪽의 치수는 裳 허리둘레 치수에서 취하고, 裳 아래단 둘레의 치수는 衣의 치수에서 취한 것은 衣·裳인 陰陽이 相交하며 그 數가 각 32가 되어 모두 64卦를 이루는 것이다.

衣 6쪽의 둘레 216寸은 24×9, 裳 허리둘레 72寸은 8×9로서 老陽數인 9를 제하고 24와 8을 합하면 32가 된다. 또 裳 아래단 둘레 144寸은 24×6, 袷의 좌우둘레 48寸은 8×6으로서 老陰數인 6을 제하고 24와 8을 합하면 역시 32가 된다.

(7) 衣 전후(216寸)와 裳 아래단 둘레(144寸)는 합하면 360寸이다.

이것은 1年の 날수에 해당된다.

(8) 布를 3尺 6寸 6分으로 나누어 衣, 裳, 소매의 길이로 삼는다.

이것 역시 1年 366日의 날수를 가리킨다.

(9) 深衣 한 벌을 만드는데는 49尺 3寸 5分³⁶⁾이 소용된다.

이것은 大衍의 數가 50이며 그것을 쓰는 것은

49이기 때문이다.

(10) 衣는 6폭 裳衽은 12폭으로 모두 18폭이 된다.

이것은 周易에서 이른바 18번 변하여 卦를 이룬다는 것에서 취하였다.

(11) 衣는 6폭 裳은 6폭이며 따로 布를 써서 續衽을 만든다.

衣는 6陽月을, 裳은 6陰月을, 續衽은 閏月을 象徵한다.

(12) 깃의 길이는 4尺이다.

이는 衣裳 12폭인 12個月이 4尺인 4時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이다.

(13) 裳 폭은 1尺 8寸을 마주잘라 허리는 1/3, 아래단은 2/3되게 하였다.

즉 허리는 1을 감하고 아래단은 1을 더한 치수가 되었다.

(14) 衣 6쪽의 나비 10尺 8寸에서 1/3을 감하여 허리둘레 치수 7尺 2寸이 되게 하였다.

즉 위는 감하고 아래는 더한 치수가 되었다.

(15) 續衽의 길이는 치마단 14尺 4寸의 1/10을 취하여 1尺 4寸 3分이 되게 하였고 4寸의 나비는 허리둘레 7尺 8寸의 1/9을 취하여 8寸이 되게 하였는데 사실은 모두 1/10에 해당된다.

(16) 領의 나비를 3배로 하면 袷이 되고(領나비는 4寸, 袷는 1尺 2寸) 袷의 둘레를 3배하면 허리둘레가 되고(袷둘레는 2尺 4寸, 허리둘레는 7尺 2寸) 허리둘레를 3배하면 소매전후 둘레가 된다.(고대에서 소매까지는 5尺 4寸이므로 좌, 우, 전, 후를 합하면 21尺 6寸) 소매 전후 둘레를 2/3배하면 裳의 아래단 둘레가 되고(14尺 4寸), 아래단 둘레를 1/12배하면 소매부리의 길이가 되고(1尺 2寸), 아래단을 1/18배하면 領衿의 안길 나비가 되니(8寸) 아래는 풍성하고 위는 간략하다.

이상 朴珪壽의 深衣 象徵성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즉 衣의 치수를 裳의 치수에서 취하였다는 것은((4), (6)) 일반적인 衣服 構成上으로 볼 때 전혀 불합리한 점이며, 또

36) 실제로 深衣를 마름질할 때 시점을 제외한 소요분량은 49尺 9寸 5分이며, 시점을 각 1寸씩 더하면 52尺 7寸 5分이 되어 이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深衣 構成에 사용된 숫자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9), (15))

그리고 許傳의 深衣制에서는 1尺 2寸을 옷 마르는 기본 치수로 하여 각 부위의 치수를 정하였다. 즉 袷의 나비 1尺 2寸을 2배하면 허리나비 2尺 4寸이 되고, 4배하면 衣 전후 길이 4尺 4寸이 되고, 6배하면 허리둘레 7尺 2寸이 되고, 12배하면 裳 아래단둘레 14尺 4寸이 된다. 또 1尺 2寸을 나누고 감하여서 袷나비는 2寸, 闕中 나비는 8寸, 衣帶下는 1尺, 緣나비는 1寸 半이 되게 하였으니 이것은 곧 陰陽奇耦의 道라 하였다.³⁷⁾

이 深衣制에서는 허리치수를 袷의 2배로 삼았기 때문에(일반적으로는 袷의 3배로 삼는다) 衣身の 폭(허리나비)이 2尺 4寸으로 줄어 간편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深衣 각 부위에 사용된 치수와 構成 방식은 일정한 數的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 數들은 陰陽과 天地 自然의 법칙을 象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數의 象徵성을 논하고 있는 글들은 禮記 본문 중에 기록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朝鮮時代의 몇 문헌에 한정되고 있다.

VI. 결 론

이상에서 深衣 구성의 象徵성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宇宙를 象徵하는 존재이며, 深衣

역시 인간의 小宇宙의 象徵성을 물체에 구현시킨 것으로서 宇宙와 인간의 조화를 의복에 표현한 것이다. 즉 深衣는 天道를 본받아 人道로 삼고자 하는 儒敎의 이념을 의복에 표현한 것으로서 이것을 儒服으로 삼아 그 道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둘째, 禮記에 의하면 深衣의 소매, 깃, 등술, 裳의 아래단 부위는 자연의 공간적 측면을 표현하는 圓, 方, 直, 平의 형태로 象徵되었다. 이것은 天(圓), 地(方), 人(直, 平)으로서 深衣에 하나의 小宇宙를 담아 인간과 宇宙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셋째, 深衣의 구성에 사용된 數는 禮記에 의하면 深衣 12폭은 자연의 시간적 측면을 포함하는 1年, 4時, 12月로 象徵되었다. 그러나 형태가 변형된 方領深衣에서는 각 부위의 치수마다 象徵的 의미를 추가하여 기존의 直領深衣와는 다른 형태와 치수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朝鮮時代의 儒學이 儒敎의 이상을 실생활에 구현시키려는 학풍이었으므로 深衣는 심연한 뜻을 담고 있는 옷임을 실증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深衣는 각부위에 宇宙의 원리가 내포되어 인간이 자연의 원리(天道)를 본받아 행해야 할 바(人道)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天과 人이 상응하여 君子の 道를 이루도록 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儒服으로서 손색이 없는 의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37) 許傳, 卷之 17.